

##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박소현\* · 이금숙\*\*

###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Distribution in Korea

So Hyun Park\* · Keumsook Lee\*\*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직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산을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직업구조, 취업인구,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다차원척도법, 대응일치분석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in Korea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in which have transformed from industrialized economy to knowledge-based economy very rapidly as well as having experiences of both IMF and financial cris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ends occupational distribution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since 1980. By applying correspondenc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ing(MDS) methods,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attainment, industry, region. We found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job) structure has been highered in general. However, it has also been dualized extremely into two groups, one is the specialized-skilled-white color jobs and the other is the simple-unskilled-blue color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tion basis for the provision of labour supply and employment policy pla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local level.

**Key Words :** occupational structure, employment popul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scaling, correspondence analysis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수료(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hyunpk5@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 1. 서론

사회변화와 공간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Massey, 1984). 경제 및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현상으로 세계경제지도가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Moretti, 2012).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구조 및 경제지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은 산업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에 대한 변화요구로 이어지면서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히 직업의 수에서도 감지된다. 직업사전이 처음으로 발간된 1969년만 하여도 우리나라 직업 수는 약 3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1986년, 직업 수는 약 9천여 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2014년 말 기준, 총 11,440개로 조사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5).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를 전후한 시기의 산업구조와 취업자의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여 ‘한 우물’과 ‘평생직장’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직업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에 걸쳐 여러 번의 직업을 거칠 확률도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직업나 이도 무너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코르 커리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Freedman, 2007).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직업역량과 구성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구조라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생산위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노동인력의 직업구성과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업자가 산업구조 상으로 ‘제조업’에 속할지라도 맡은 업무가 연구개발이라면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산업과 직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직업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산업분석과 함께 직업분석도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and Thompson, 1985; Markusen, 2004; 구교준·조광래,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직업단위의 인력구조의 관점보다는 사업체단위의 산업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직업구조에서도 특정직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을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직업구조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인력수급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고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인 취업자의 성, 연령, 학력 수준 등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향의 차이로 인구통계학적 구조에 따라라도 직업분포의 특성이 달라진다. 인적자원의 구성으로서 취업인구의 직업구조 및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산업구조, 그리고 지역의 공간구조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직업은 직업통계의 공식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에 따라 총 9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조를 따르되, 직업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직업별 산업구조, 지역의 공간구조의 관계 측면에서 직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급진적 산업화과정에서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및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

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의 직업구조 및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의 교차비교 및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 2.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동향

산업과 고용의 지리를 사회 및 경제적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Massey(1984)의 시도 이후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지리적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업지리학의 개념이 소개되고 직업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업에 관한 연구는 직업능력, 직무분석, 직무만족, 직업의식, 이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구조, 직업분류, 직업이동, 직업변동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에 속한다(이영대, 1999; 한상근, 2005의 직업연구 동향 참고).

다음 표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직업연구를 구분, 정리한 것이다<sup>1)</sup>. 이 기간 동안 직업관련 연구는 총 2,519건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가 684건(27.2%)이고, 직업윤리, 직업가치 내지는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등 직업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와 직업지위 또는 직업위세, 직업계층 등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을 연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직업연구는 941건(37.5%)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의의 직업연구를 보면 직무분석과 직업능력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망과 유망직업의 경우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국회연구기관<sup>2)</sup>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직업구조, 직업분류에 관한 연구진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평생직장의 붕괴, 이전직의 증가로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연구 가운데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포, 격차 등을 다룬 연구(김현재, 1989; 서종국, 1998; 이희연, 1993; 이현영 등, 2014), 둘째,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직업별 분포의 특성을 다룬 연구(한주성, 1998; 노시학, 2000; 정연주, 2001; 조현미, 2007), 셋째, 구직, 취업과 관련한 인구이동 및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결정요인(권상철, 2000; 안영진, 2001; 2013; 박추환·김명수, 2006; 박삼옥 등, 2008; 문남철, 2010; 2011; 2013; 강영걸, 2012; 김동현 등, 2012; 이현욱, 2013; 이현재, 2014; 이정현·이희연, 2015; 이원호, 2016)을 파악한 연구, 아울러 이로 인한 직주분리 현상(한주연, 1989; 하성규·김재익, 1992; 노시학·손종아, 1993; 김재익·전명진, 1996; 김형태, 2009; 김승남, 2014; 손승호, 2015)을 고찰한 연구들로 정리된다.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는 직업의 분포와 직업을 위한 지역 간 이동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직업관련 심리·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양정미 등, 2011; 이태희·김려은, 2011)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계층구조와 연관시켜 논의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lau and Duncan, 1967; Parkin, 1971; Sewell and Hauser, 1975; Bibb and Form, 1977; Reeve, 1977; Feathermann, 1981; Kalleberg, 1988; Bidwell, 1989; Ganzeboom *et al.*, 1991; King, 1992; Crompton, 1993; Murphy and Welch, 1994; Zawacki, 1999; Eric and Pager, 2001; Chan and Goldthorpe, 2004). 주로 소득, 교육수준과 직업의 관계를 계층(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구조를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골드칼라로 지칭되는 직업군을 비롯한 전문직 등 직업계층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를 들 수 있

다(강신태, 1976; 정근식, 1984; 심윤종 등, 1987; 김지섭, 1994; 차종천, 1998; 신광영·이성균, 1999; 서문기, 2004; 이중희, 2005; 임창규·유인진, 2011; Yoo *et al.*, 2014; 최은영·홍장표, 2014).

그 외,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사회의 변화(도시화, 산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써 사용되곤 했다(김현재, 1989; 이기석, 1990; 정이환, 1992; 김기환, 1993; 이원호 2002). 또한, 특정산업의 직업구조(유경희, 1985; Devinat, 1999; Freeman and Aspray, 1999; Cusumano, 2004; 유규창 등, 2005; 한상근, 2005; 심규범, 2009)를 다룬 연구도 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정보관련 직업구조(김원동, 1992; 장창원·이상준, 1999; Feser, 2002; 권기욱·조주은, 2007) 및 정보관련 직업분포의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이희연, 1993; 조동기·조희경, 2002). 마지막으로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를 다룬 연구도 있다(Hodson and Sullivan, 1996; 한주성, 1998; Hirsh, Macpherson and Hardy, 2000; 박경숙, 2002; 진미석 등, 2003; 조가원, 2014).

이상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직업연

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하지만 계층적 차원에서의 연구, 특정산업 또는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이며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산업통계와 달리 직업통계의 경우 공식집계자료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해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직업구조를 다룬 일부의 연구마저도 주로 유망직업을 전망하거나 특정직업의 직무 분석을 위한 직업구조 전반에 대해 개괄한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특징과 추이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로 김현재(1989),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현재(1989)는 1960-1985년간 5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도시규모별 직업구조의 변화를 사무관련직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사무 종사자를 모두 합쳐 사무관련직으로 보았다.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도 시계열 구간의 차이일 뿐, 6개(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의 직업분

표 1. 직업관련 연구의 구분 및 연구동향(2005-2015)

(단위: 권)

구분		관련연구 문헌 수	주요 연구대상
직업교육훈련		684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체험, 직업재활
심리·사회적 측면 (외재적 접근)		941	직업탐색, 직업선택(선택),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직업태도,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직업계층, 직업위세, 직업지위
경제적, 협회의 측면 (내재적 접근)	직업구조(직업구성)	21	직업구조, 직업구성, 직업군
	직업분류	12	직업분류, 직업군집화/유형화
	직업정보(직업세계) 직업전망(유망직업)	41	직업정보, 직업세계, 직업사회, 직업전망, 유망직업, 직업변동(변화)
	직업이동(이전직)	69	이직, 전직, 경력이동, 직업이동
	취업(구직)	69	취업, 재취업, 구직, 입직
	직업능력(직업기술)	183	직업기초능력, 직업스킬, 지식
	직무분석	332	직무분석, 직무개발, 직업전문성
기타		164	직업생활(적응),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안정(유지) 등
계			2,519

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역시 직업자료를 재구성할 때 과거와의 자료 연결성을 위하여 일부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시점과 달리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범주화는 각 직업군의 특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3)</sup>.

### 3.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양상과 추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업구조는 계층(class)의 의미와 구성(composition)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기준은 직능수준(skill level)에 따른 분류로 이미 계층성을 띠고 있고<sup>4)</sup>, 각 직업별 사회-인구통계적 구성분포의 변화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각 시기별 직업자료의 재구성에서 직업군의 통합을 배제하였다.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할 경우, 현재 직업분화에 따른 각 직업군의 분포특징과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직업군의 통합재구성 없

이 모든 직업, 즉 직종별 변화추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의 산업별·지역별 직업분포도 함께 교차 비교하여 살펴본다.

다음 그림1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직업별 취업인구 구성분포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sup>5)</sup>.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의 구성비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다소 증가세를 보였지만 ‘판매 종사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생산관련 직종은 외환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일시적으로 취업인구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의 경우 동일한 직능수준이 요구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달리, 2000년 이후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에서 비중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이 그룹에 통합된 직업군을 세분화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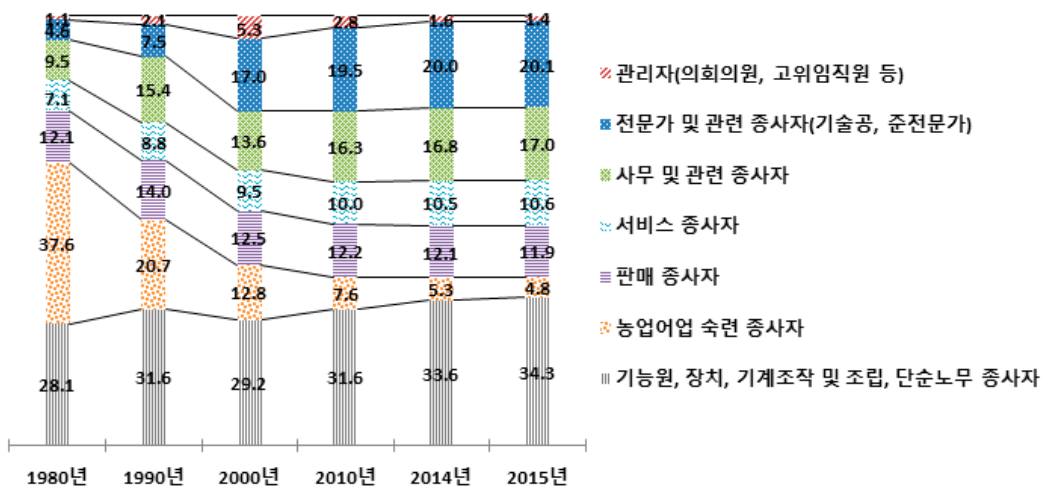


그림 1.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2000,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통합구성비는 1980년 28.1%에서 1990년 31.6%로 증가세를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29.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1.6%, 2015년 기준 34.3%로 전체 취업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1995년 6.8%, 2005년 7.6%에서 2010년 10%를 넘어서며, 2015년 기준 13.2%의 비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5년 대비 2015년의 증가율은 무려 182.0%에 달한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정체 상태를 보이며 2015년 기준 9.0%를 차지하였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 11.2%에서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세에 머물며 2015년 기준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 직업의 증가세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이며 ‘사무 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30여 년간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구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 직업군에서 무려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4, 5는 이를 다시 직업별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분포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직업별 성별구조를 보면(표 3) 1985년 당시만 하여도 남녀 모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산업화로 지속

표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분포 추이

직업군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	31.6	13.8	10.5	10.1	8.9	8.8	9.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2	11.2	11.7	12.2	12.0	12.1
단순노무 종사자			6.8	7.5	7.6	10.5	12.9	13.2
계	28.1	31.6	31.8	29.2	29.4	31.6	33.6	34.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표 3. 직업별 성별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남성				여성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관리자	1.9	6.3	5.3	2.4	0.1	0.6	1.0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2	<b>18.2</b>	<b>18.3</b>	18.0	5.8	14.7	<b>20.2</b>	<b>22.8</b>
사무 종사자	12.8	9.8	15.3	15.6	11.1	15.1	18.3	18.9
서비스 종사자	5.8	15.3	5.8	6.3	11.8	<b>27.9</b>	16.0	16.4
판매 종사자	12.7		9.2	10.1	12.4		14.0	1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1	12.6	9.1	5.0	<b>40.1</b>	21.0	13.3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b>34.4</b>	17.1	13.7	13.5	18.7	7.9	4.3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15.2	<b>18.3</b>		5.5	6.1	3.7
단순노무 종사자		6.5	8.1	11.1		7.3	6.8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적인 급감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각각 5.0%, 4.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1985년 당시 '관리자'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고학력화, 지식기반화의 영향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남녀 각각 18.0%,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난 35년 간 매우 높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남녀의 직업업종 차이에 따라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구성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

비스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남성보다 항상 높다. '사무 종사자'에서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18.9%)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1995년 비중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5.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성별 관계없이 급증세를 보여 왔고 지난 10년간 여성 증가율(49.1%)이 두드러진다.

표 4는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취업인구 가운데 30대(15-

표 4.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15-19세				20-29세				30-39세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0	0.0	0.1	0.0	0.2	0.9	0.4	0.2	1.4	4.8	2.6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7.1	8.7	6.9	5.8	23.3	<b>29.6</b>	<b>29.9</b>	5.8	20.9	<b>25.2</b>	<b>30.2</b>
사무 종사자	9.3	<b>26.6</b>	16.2	11.4	15.4	<b>23.4</b>	27.0	24.6	10.3	11.3	21.9	26.8
서비스 종사자	7.5	16.7	19.1	<b>34.3</b>	7.3	17.8	9.1	13.2	8.0	<b>21.6</b>	8.9	7.1
판매 종사자	4.9		12.3	23.7	10.1		10.3	11.9	16.2		11.3	1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8	4.7	1.5	0.8	24.4	3.7	1.1	0.7	28.7	6.9	2.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b>53.3</b>	16.2	4.3	0.8	<b>36.9</b>	14.4	7.5	4.4	<b>29.6</b>	16.4	11.2	7.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8	<b>30.8</b>	5.3		12.4	11.3	8.2		12.6	11.4	9.9
단순노무 종사자		4.9	6.9	16.7		4.0	3.7	7.0		5.4	5.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군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1.9	6.9	5.6	2.0	1.7	5.9	6.1	2.9	0.8	3.2	3.0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13.9	<b>16.0</b>	<b>21.5</b>	3.3	9.8	11.1	11.6	1.9	5.3	4.9	5.2
사무 종사자	6.6	6.3	13.9	17.8	3.6	4.1	8.3	9.5	0.9	1.5	2.6	3.2
서비스 종사자	7.3	<b>24.2</b>	12.0	9.7	5.6	18.3	10.9	13.6	2.8	9.4	4.2	8.2
판매 종사자	14.2		12.4	13.7	12.0		11.2	12.6	8.1		7.4	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b>45.4</b>	13.7	6.3	1.8	<b>61.9</b>	<b>32.2</b>	<b>16.5</b>	5.5	<b>80.8</b>	<b>65.6</b>	<b>56.1</b>	2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	15.0	12.4	10.9	11.9	10.6	10.8	11.9	4.7	3.7	3.7	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	13.6	13.0		7.6	12.9	<b>16.3</b>		2.1	4.7	10.4
단순노무 종사자		8.1	7.8	9.5		11.5	12.2	16.0		9.1	13.4	<b>31.4</b>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39세)까지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생산관련 직종에 높은 취업분포를 보였고 40대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1995년,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 이상은 ‘사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59세)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5.6%)’로 나타났다. 2005년, 취업인구 중 15-1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0.8%)’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50-5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9%)’와 ‘단순노무 종사자(12.2%)’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여전히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15-19세 취업인구는 ‘서비스 종사자(34.3%)’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2005년 이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도 2005년 이후로 취업인구 중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3%)’와 ‘단순노무 종사자(1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2005년까지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이었으나 2014년 ‘단순노무 종사자(31.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연령구조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20-49세의 젊은층이 유입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지난 35년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20-30대 취업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젊은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현상을 엿볼 수 있다.

표 5는 직업별 학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의 제한이 있어 각 직종별 학력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학력수준 향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취업분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14년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인구는 1980년 당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표 5. 직업별 학력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2	0.9	1.0	0.2	1.3	3.9	2.7	0.7	7.1	9.9	5.9	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6	1.9	1.4	0.8	4.7	10.8	7.4	7.0	<b>35.8</b>	<b>49.5</b>	<b>39.3</b>	<b>39.8</b>
사무 종사자	2.3	2.2	2.9	1.2	26.1	16.2	14.8	12.4	28.7	17.5	25.2	27.3
서비스 종사자	8.2	21.2	12.0	13.5	7.9	24.4	12.9	14.4	4.0	11.9	6.1	5.8
판매 종사자	12.0		8.8	8.9	16.8		14.9	16.4	11.9		8.9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b>41.2</b>	<b>33.6</b>	<b>33.8</b>	20.5	11.8	5.2	5.1	3.3	3.1	1.3	1.3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6	17.1	11.7	10.6	31.5	17.3	14.4	12.3	9.5	5.2	5.8	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4	12.4	11.9		16.2	<b>19.0</b>	<b>18.9</b>		3.2	5.2	5.6
단순노무 종사자		11.8	16.0	<b>32.4</b>		5.9	8.8	14.6		1.5	2.3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31.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26.1%)였다. 1995년 고졸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6.2%의 비중으로 많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졸 취업인구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의 구성비 증가세보다 대졸 학력자의 증가세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직업군에서도 고학력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졸 이상 취업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1995년 구성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27.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 기준 고졸(약 148만 명)과 중졸 이하(약 146만 명)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약 36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약 4배가량 많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도 지난 20년간 무려 약 5.8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기준 산업·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표 6. 산업·직업별 분포(2014)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농·림·어업	0.2 (0.8)	0.4 (0.1)	0.6 (0.2)	0.0 (0.0)	0.0 (0.0)	<b>92.1</b> ( <b>98.2</b> )	0.1 (0.1)	0.3 (0.2)	6.3 (2.8)	100.0
광공업	2.2 ( <b>24.2</b> )	10.2 (8.7)	20.1 (20.3)	0.3 (0.4)	2.1 (2.9)	0.0 (0.1)	17.2 (33.3)	<b>36.0</b> ( <b>51.0</b> )	11.9 (15.7)	100.0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7.1 (1.5)	21.4 (0.4)	<b>33.3</b> (0.6)	1.2 (0.0)	1.2 (0.0)	0.0 (0.0)	7.1 (0.3)	16.7 (0.5)	11.9 (0.3)	10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0.8)	3.4 (0.1)	16.1 (0.3)	1.1 (0.0)	3.4 (0.1)	0.0 (0.0)	4.6 (0.2)	<b>46.0</b> (1.3)	21.8 (0.6)	100.0
건설업	4.1 (18.4)	10.0 (3.5)	13.4 (5.6)	0.1 (0.1)	0.7 (0.4)	0.3 (0.4)	<b>47.6</b> ( <b>38.1</b> )	9.9 (5.8)	13.9 (7.6)	100.0
도매 및 소매업	0.7 (7.1)	6.4 (4.8)	15.3 (13.4)	0.3 (0.4)	<b>61.9</b> ( <b>75.5</b> )	0.0 (0.1)	2.3 (4.0)	1.7 (2.1)	11.3 (13.0)	100.0
숙박 및 음식점	1.1 (5.8)	0.9 (0.4)	1.6 (0.8)	<b>69.2</b> ( <b>53.8</b> )	8.8 (5.9)	0.0 (0.0)	1.4 (1.3)	0.2 (0.2)	16.7 (10.7)	100.0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4.3)	22.5 (9.3)	17.9 (8.8)	0.8 (0.7)	2.2 (1.5)	0.0 (0.0)	2.6 (2.5)	<b>42.2</b> (29.3)	10.9 (7.0)	100.0
금융·보험	4.4 (9.3)	9.1 (1.5)	<b>51.3</b> (10.0)	0.5 (0.1)	33.0 (8.9)	0.0 (0.0)	0.2 (0.1)	0.1 (0.0)	1.4 (0.4)	100.0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1.4 (9.6)	<b>30.8</b> (16.3)	25.3 (15.9)	4.0 (4.0)	3.8 (3.3)	0.3 (0.7)	3.5 (4.2)	5.7 (5.0)	25.1 (20.7)	100.0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1.2 (18.4)	<b>44.9</b> ( <b>55.0</b> )	16.6 (24.1)	17.3 (40.3)	0.7 (1.4)	0.1 (0.6)	5.7 (16.0)	2.3 (4.7)	11.2 (21.4)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를 교차 비교하였다(표 6)<sup>7)</sup>. 먼저 산업별 직업분포를 보면, 광공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36.0%의 구성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가스중기 수도사업은 사무 종사자(33.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6.0%의 구성분포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2.2%의 구성비를 차지한다. 금융 및 보험업에는 사무 종사자(51.3%)가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30.8%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 역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9%)’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업단위의 취업구조에서 산업분포를 보면, 관리자는 ‘광공업’과 ‘건설업’ 내 취업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44.9%)’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30.8%)’에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는 ‘금융 및 보험업’에 절반이 넘는 51.3%가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점(69.2%)’에 판매 종사자는 ‘도매 및 소매업(61.9%)’에 압도적인 취업분포를 나타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속한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98.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38.1%)’에의 취업분포가 높았고, 광공업도 3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광공업에 51.0%가 분포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21.4%)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감소세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관리자’의 경우 광공업 30.6%(95)→25.8%(05)→24.2%(14)과 건설업 20.7%(95)→19.2%(05)→18.4%(14) 내 구성비에서 두드러지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사무 종사자’의 산업분포에서도 광공업의 구성비는 30.0%(05)→20.3%(14)로 급격한 감소세,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광공업’에 종사하는 분포 비중도 21.9%(05)→16.0%(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들 직종에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산업에서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산업 내 직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농·림·어업, 광공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업 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판매 종사자는 63.0%(05)→61.9%(14)로 구성비가 감소한데 반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0.9%(05)→6.4%(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11.3%(14)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2.6%(05)→44.9%(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6%(05)→11.2%(1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8%(05)→22.5%(14)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숙박 및 음식점’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59.5%(05)→53.8%(14)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16.7%(14)의 비중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사무 종사자가 각각 49.4%(05)→51.3%(14), 17.5%(05)→25.3%(1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으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다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관측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한국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 변화에 나타나는 특성

##### 1) 직업 제 속성과의 상호관계에 나타는 직업구조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 가운데 직업 자체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자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sup>8)</sup>을 사용하였다.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법의 하나로 저차원(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에서 대응일치표를 사용하여 다변량의 범주형(categorical) 자료, 특히 명목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각 변수의 범주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내려는 분석으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90도씩 회전시키면서 관성(inertia)의 설명 정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며 대응분석에서 차원(dimension)은 요인분석의 요인(factor)과 유사하다(SPSS통계패키지22, 도움말). 요인특점과 같이 차원의 점수는 행과 열 변수의 점수로 산포도 상에서 좌표 값으로 나타난다. 즉, 산포도 상의 동시배치로 각 변수별 범주들의 공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노형진, 2011). 좌표 값의 위치가 근접할수록 연관성이 높고, 멀수록 연관성이 낮은 범주가 된다.

대응분석에 투입된 행 변수는 1995년과 2014년 기준 전국 취업인구의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산업별, 지역별(시군구) 취업인구의 경제·지리적 속성이고 열 변수는 전국 취업인구의 직업으

로 9개의 직업대분류를 투입하였다<sup>9)</sup>. 행과 열 사이의 거리측도는 카이제곱거리로 설정하였고 정규화는 두 변수 범주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칭적정규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모델에서 각 차원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취업인구의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를 공간상에 표시시킨 산점도를 나타낸다. 관성비율은 각 차원의 설명력으로 1995년의 경우 1차원에서 56.4%, 2차원에서 24.3%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0.6%를 설명하였고 2014년도 1차원 55.5%, 2차원 31.2%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6.6%를 설명하였다. 비정칙값은 행과 열 점수의 상관계수로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상관계수는 1차원에서 각각 .516(95년), .494(14년)의 값을 나타냈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면, 지난 20년간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15-19세 취업인구의 경우 1995년 여성은 '사무 종사자'에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15-19세 남녀 취업인구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9세의 남성 취업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여성은 '사무 종사자'와 관련성을 보였고 30-39세 취업인구 중 여성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매우 근접하였고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0대와 30대 남녀 취업인구는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남성 취업인구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59세, 60세 이상의 여성 취업인구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60세 이상 남성 취업인구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에서 직업구조의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할 수 있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

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다.

직업 간의 관계도 보다 근접해졌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서로의 거리가 가장 근접해졌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가 서로 근접해지면서 직업분포의 연관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성/학력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일지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성별/학력별 취업인구와 직업 간의 관계는 1995년의 경우 1차원 62.0%, 2차원 19.1%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1.2%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차원 1이 64.3%, 차원 2가 21.7%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6.6%로 나타났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고 ‘관리자’는 대졸 이상의 남성과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1995년만 해도 고졸 여성 취업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여성취업인구 중 고졸학력자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고졸의 남성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인구 중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2014년에는 두드러지게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직업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여성 취업인구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 수준의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였다. 직업 간의 관계만을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가장 인접하여 유사성을 띠며 분포하고 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도 서로의 거리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자’는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인접하여 유사성을 띠었으나 성/학력수준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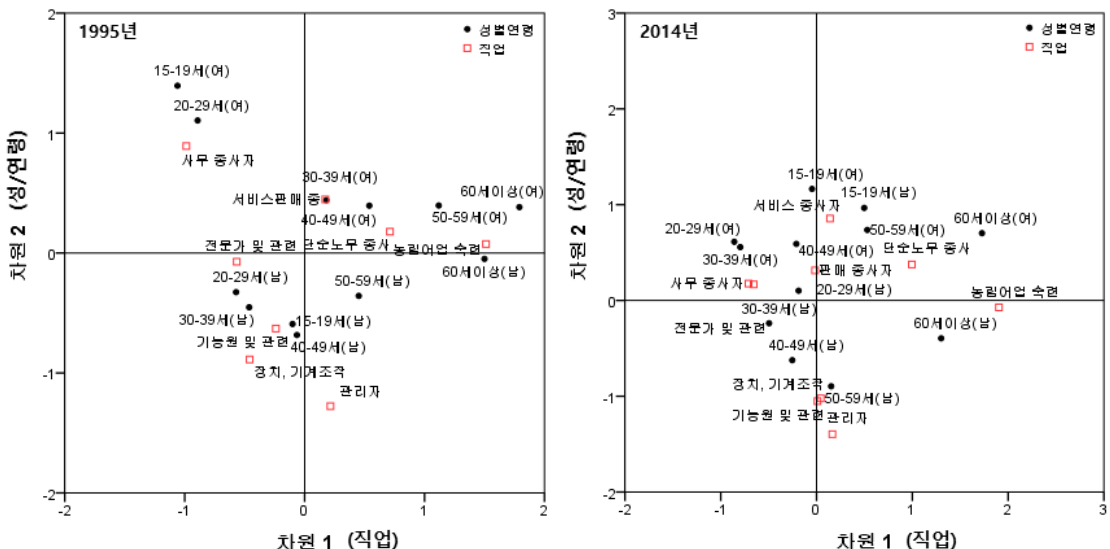


그림 2. 성, 연령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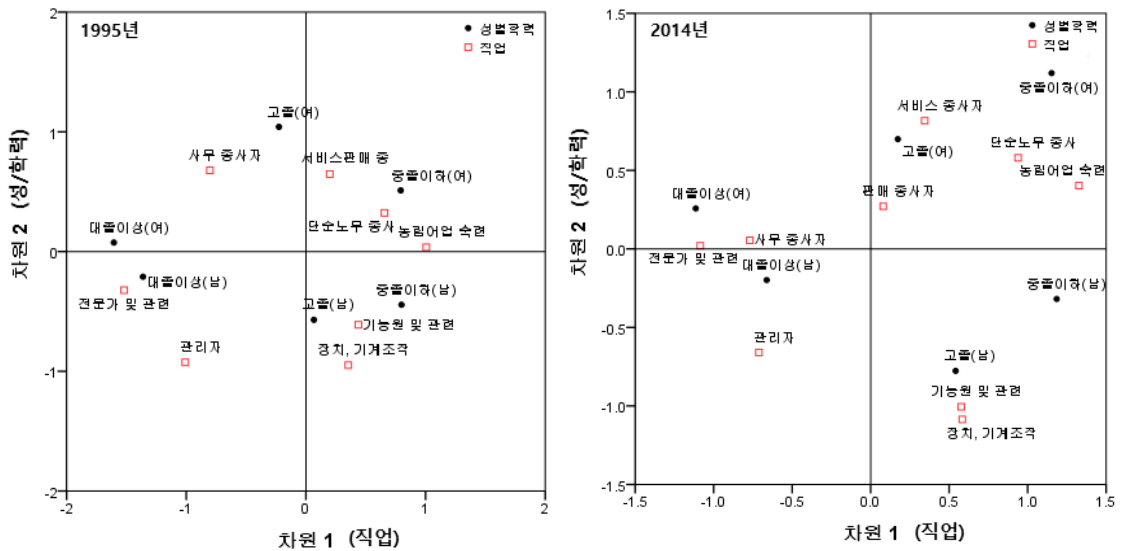


그림 3. 성, 학력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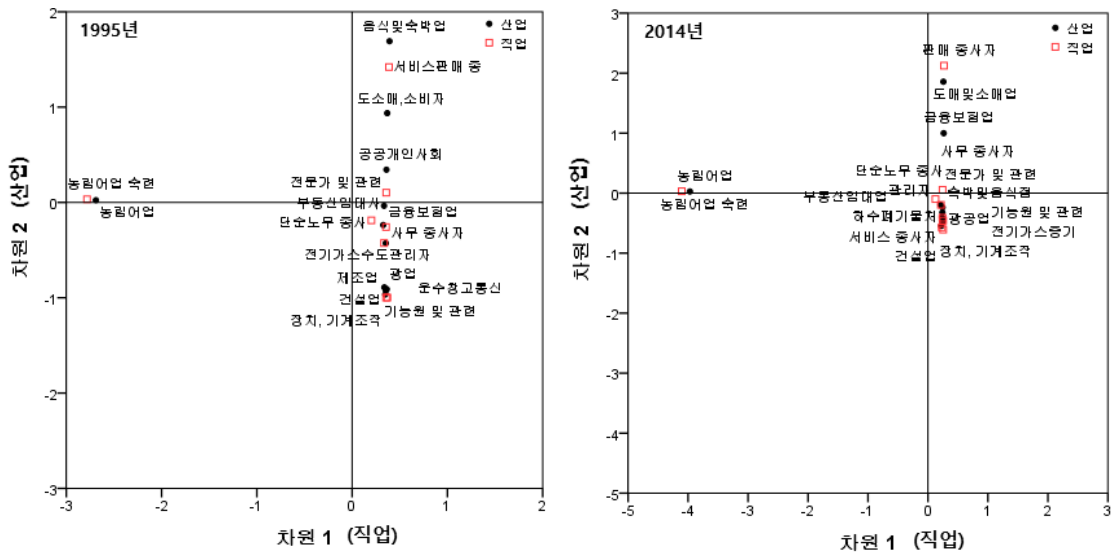


그림 4. 산업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대응분석 결과에서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 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516('95년), .494('14년)이었으나 성/학력의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639('95년), .634('14년)로 산출되었다. 성/연령 속성보다 성/학력 속성이 직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 가운데 취업인구의 학력 변화는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가 전(全)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의 재취업 증가, 청년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 현상 등 취업연령층의 확대와 연령층별 직업분포의 분리로 연령 세분화에 따른 직업구성과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취업인구의 산업과 직업 간의 대응 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1995년의 경우 1차원에서 55.5%, 2차원 23.8%, 3차원 14.2%로 3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3.0%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1차원에서 41.8%, 2차원 21.3%, 3차원 19.7%로 3개 차원에서 총 누적 82.8%를 설명하였다.

1995년과 2014년 모두 기준점을 중심으로 좌측 중간에 농·림·어업이 위치하고 있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인접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판매 종사자'와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그 외 1995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판매 종사자'와의 거리에서 1995년보다 2014년에 더 근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광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우측 하단(제4사분면) 공간상에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정칙값은 .965('95년), .949('14년)로 산업과 직업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점도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산업과 직업변수의 좌표 값(차원의 점수)의 분산

정도를 보면 1995년보다 2014년이 보다 더 조밀한 분포를 보이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 2) 직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

마지막으로 직업분포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과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포지셔닝한 산점도는 그림 5와 같다.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비정칙값은 각각 .609('00년), .502('10년)로 나타났다.

시군구 수준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 간의 관계는 2000년에 차원 1에서 80.0%, 차원 2에서 11.0%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1.0%를 설명하였고 2010년에는 차원 1에서 73.9%, 차원 2에서 15.8%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9.7%이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직업 간 관계만을 볼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그룹으로 묶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여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직업 간 거리는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가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공간상에 단독 위치하고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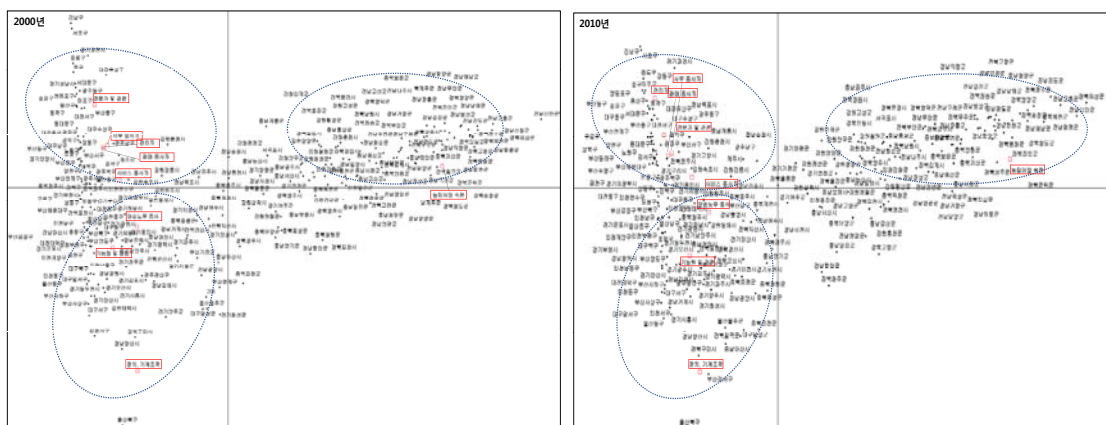


그림 5. 지역(시군구)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자'와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전남(해남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고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나주시,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구례군 등), 전북(남원시, 부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경북(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양군,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상주시, 영덕군 등), 경남(산청군,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등), 충남(홍성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등) 지역 등이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좌측 하단인 제3사분면의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 보이는 지역으로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부산 강서구, 경북(구미시, 칠곡군)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울산(동구, 울주군), 경남 양산시, 충북 진천군 등이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경기(오산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등)와 인천(서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등), 경북(포항시, 경산시 등)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 가운데 서비스 종사자와의 거리가 더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와 인접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관리자'의 경우 점차 서울 내 행정구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다. '사무, 판매 종사자'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전주시 등), 충남(계룡시 등)의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강원(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지역과 제주도 등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제4사분면을 중심으로 일부 도서지역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 가운데 대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일부 시군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업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그룹으로 묶이지 않았던 제4사분면의 일부지역의 경우 별도의 입지제

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직업집중도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다른 직업군의 상대적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역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0)</sup>.

한편, 대응일치분석결과에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대응관계는 산업, 성/학력수준, 지역, 성/연령 속성 순으로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인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자'는 점차 서울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고, '사무, 판매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 충남의 일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경기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일부 시군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간상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경남, 부산, 경기, 인천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인접 분포를 나타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지역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과정과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탈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한국의 직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산업화과정기인 1980년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인구 분포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첨단산업의 발달 등 지식정보화로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업인구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전(全)직업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구조의 변화와 달리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분포의 성별구조에서 남녀의 직업선호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연령별 취업인구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경제활동연령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업구조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를 나타내 농촌의 고령화와 직능수준이 낮아 취업 장벽이 낮은 직업으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분포의 학력구조는 고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고졸 학력자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이 직업군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인구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어 고학력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직업 내 산업 구성과 산업 내 직업 구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 내 직업구조의 고도화가 관측되었으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는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추세는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직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인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인구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의 직업구조에서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수준의 남녀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과 산업의 대응관계는 농·림·어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과 '판매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며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에서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였다.

대응분석 결과 산출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직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사회-인구통계적 속성 가운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직업의 구성 분포에서도 확인했듯이, 직업구성의 변화에 있어 주요 동인은 산업구성의 변화이며, 산업구성의 변화는 동일산업 내 직업구성의 이질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하는 직업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과 개발이라는 측면과도 직결된다. 직업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는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고용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가 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내 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단위의 취업자로 구성된 인력구조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포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의 성격과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직업연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석과 달리 직업분석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공식자료에서도 지역단위자료의 경우 제공범위도 작고 기간별 제공되는 구축자료의 체계와 연결성도 떨어져 시계열 분석에 애로가 있었다. 좀 더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

- 1) 직업관련 연구의 추출작업은 연구제목과 내용에 “직업”이 들어간 모든 검색자료를 추출한 후 다시 연구자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검색 시 제목에 직업이란 키워드가 없어도 직업관련 연구내용일 경우 집계에 포함하였다. 직업성 질환, 직업관련 법, 제도 등과 관련되는 전문성이 매우 짙은 연구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출간 연도는 2005~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자료범위는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로 한정하였다. 검색엔진은 국회도서관 전자DB, google scholar, RISS, KISS를 이용하였다. 추출 후 분류작업은 이영대(1999)와 한상근(2005)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 2) 고용정보원 <미래의 직업세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등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3) 실제로 직업분류 시,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직

능수준 상 같은 범주로 묶여 집계, 분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무 종사자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 4)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는 직능수준에 따라 총 9개의 분류로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9.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제6차 개정).
- 5)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1980년, 1985년, 1990년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3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1995년은 제4차 개정, 2000년, 2005년은 제5차 개정, 2010년, 2015년은 제6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된 직업분류로 인해 과거년도 기준과 연계 비교를 위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총 6개의 직업대분류 범주로 통합 재편성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3차 개정을 기준으로 대분류 항목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제4차 개정을 기준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개정안마다 대분류 체계 항목의 의미는 유사하나, 항목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편의상 가장 최근 개정안인 제6차 직업분류 개정안의 항목명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직업대분류명은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 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이다. 군인, 분류불능(기타, 미상)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 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직능 수준은 제2직능 수준으로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 7) 산업·직업별 구성분포도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지면분량 상 가장 최근시점인 2014년 구성분포만 삽입하였다.
- 8)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 쌍대척도법(dual scaling),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 등 같은 기법을 일컫는 명칭이다(Tenenhaus & Young, 1985).
- 9) 등간척도로 재구성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 변수는 다시 명목형 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시군구)단위의 자료는 구축 가능년도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2000년과 2010년의 자료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 10) 예를 들어, 2000년 제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의 경우 2010년에는 제3사분면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LQ지수 값을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3.01(‘00년)→2.06(‘10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0.61(‘00년)→0.83(‘10년),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1.34(‘00년)→1.87(‘10년)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 참고문헌

- 강신태, 1976, “행정조직상의 계층구조와 전문직,” 행정논총, 14(2), 2094-2099.
- 강영걸, 2012,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이직의도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86-100.
- 권기욱 · 조주은, 2007, “유비쿼터스 사회의 직업구조에 대한 시론적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3, 5-38.
- 권상철, 2000, “한국의 인구이동과 대도시의 역할: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57-68.
- 구교준 · 조광래, 2011, “창의경제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45(2), 269-289.
- 김기환, 1993,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취업구조의 변화,” 경제와사회, 17, 263-285.
- 김동현 · 최예슬 · 임업, 2013, “일반화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노동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8(3), 3-24.
- 김승남, 2014, “재택근무는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고용입지에 대한 종속성을 약화시키는가? -수도권의 정보화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31(1), 35-62.
- 김원동, 1992, “정보화사회의 직업과 노동의 성격변화,”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40-63.
- 김재익 · 전명진, 1996, “직업중심지별 직주분리패턴의 비교분석,” 지역연구, 12(1), 77-91.
- 김지섭, 1994, “화이트칼라의 내적 분화와 계층론적 함의,” 한국사회학, 28, 71-96.
- 김헌재, 1989, “도시성장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안지리, 4(8), 1-52.
- 김형태, 2009, “직주균형이 통근통행에 미치는 영향 (1990-2005):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4(7), 171-184.
- 노시학, 2000,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취업형태와 통근통행패턴간의 연관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43-56.
- 노시학 · 손종아, 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통행패턴의 차이 -서울의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8(3), 227-246.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581-593.
- 문남철, 2011, “구직과 구인, 취업참여의 지역간 차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176-191.
- 문남철, 2013,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유럽연합 Grande Region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167-181.
- 박경숙, 2002,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 · 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 노동정책연구, 2(2), 69-81.
- 박삼욱 · 진종현 · 구양미(2008),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3), 337-357.
- 박추환 · 김명수, 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22(2), 97-113.
- 방하남 · 김기현 · 신인철, 2011,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서문기, 2004, “정보사회와 골드칼라: IT 인적자원의 가능성과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 11(4), 33-55.
- 서종국, 1998, “도시공간구조변화와 통행행태의 변화관계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산업 및 직업별 인구분포와 통근행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3(5), 167-182.
- 손승호, 2015,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의 변화와 직-주의 공간적 분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97-110.
- 신광영 · 이성균, 1999, “IMF 경제위기 하에서의 계급과 실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72.
- 심규범, 2009, “건설업의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노동리뷰 4월호, 42-59.
- 심윤종 · 양종희 · 김정탁, 1987,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화이트 칼라의 성격구명을 위하여-, 사회과학, 27(1), 187-274.
- 안영진, 2001,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37-56.
- 안영진, 2013, “대학 졸업생의 취업구조 및 취업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전남대학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7(3), 337-350.
- 양정미 · 정기환 · 최종률, 2011, “관광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이 취업결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지리학회지, 21(4), 187-203.
- 유경희, 1985,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의 신직종, 한국통신헌회 심포지움, 111-118.
- 유규창 · 서용구 · 신도철 · 안주엽 · 문주희 · 한상근, 2005,



-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직업구조 특성과 인적자원 개발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기석, 1990, “후기산업사회의 고용전환과 도시구조,” 지역연구, 6(2), 107-121.
- 이원호, 2002,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과 소득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87-207.
- 이원호, 2016,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대한지리학회지, 51(1), 41-56.
- 이정현 · 이희연, 2015, “광역경제권별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 비교,” 지역연구, 31(2), 79-100.
- 이중희, 2005, “중국에서의 중간계층의 성장과 구조변화,” 국제지역연구, 9(3), 221-250.
- 이태희 · 김려은, 2011, “지리적 격리형 강원랜드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카지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75-85.
- 이현욱, 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05-118.
- 이현재, 2014, “우리나라의 권역별 기대소득 격차와 노동 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0(1), 63-80.
- 이희연, 1993, “우리나라 정보관련직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9(1), 3-24.
- 이현영 · 임엽 · 최예슬 · 김민영, 2014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속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30(4), 3-20.
- 임창규 · 유인진, 2011, “세대 간 직업계층의 계승과 직업 지속성 간의 관계,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2), 127-151.
- 장창원 · 이상준, 1999, “지식 · 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 2007, “직업구조와 직업선택의 변화,” 본질과 현상, 7, 71-84.
- 정근식, 1984, “화이트칼라의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학연구, 7, 83-102.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27-42.
- 정이환, 1992, “후기 산업 사회와 직업 구성의 변화,” 사회와 역사, 38, 89-114.
- 조가원, 2014, “고급 과학기술인력 직업구조의 전환 - 이공계 박사인력의 세대별 분석,” 과학기술정책, 24(3/4), 16-28.
- 조동기 · 조희경, 2002, “지식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특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현미, 2007, “재일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 대한지리학회지, 42(4), 601-615.
- 진미석 · 노일경 · 손유미, 2003, “직업지도에서 나타난 여성직업구조의 특성,” 진로교육연구, 16(1), 17-36.
- 차종천, 1998, “직업위세와 계층구조,” 한국사회학, 32, 737-756.
- 최은영 · 홍장표, 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 하성규 · 김재익, 1992, “주거지와 직장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연구-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7(1), 51-71.
- 한상근 2005, “직업연구의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18(1), 168-186.
- 한주성, 1998, “재중 · 재미 · 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4(2), 219-234.
- 한주연, 1989, “서울시의 직업별 거주지 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1, 32-70.
- 홍두승 · 김병조 · 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13, 서울대학교출판부.
- Blau, P. M. and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Wiley, New York.
- Bibb, Robert and William H. Form., 1977, The effects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sex stratification on wages in bluecollar markets, *Social Forces*, 55, 974-996.
- Chan, T. W. and J. H. Goldthorpe., 2004, Is There a Status Order in Contemporary British Society? Evidence from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Friendship,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5), 383-401.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Polity Press, Cambridge.
- Eric, G. and D. Pager., 2001, The Structure of Disadvantage: Individual and Occupational Determinants of the Black-White Wage Gap, *American Sociologi-*

- cal Review*, 66(4), 542-567.
- Feser, E., 2002, What regions do rather than make: A proposed set of knowledge-based occupation clusters, *Urban Studies*, November.
- Feathermann, D. L., 1981,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Two Cumulative Social Science, *The State of Sociology*, 79-100, edited by J. F. short, Sage, Berkeley Hills.
- Freedman, M., 2007, *Encore: Finding Work that Matters in the Second Half of Life*, 김경숙 옮김(2009) 양코르: '오래 일하며 사는' 희망의 인생설계, 프런티어.
- Freeman, P. and W. Aspray., 1999, The Supply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Computing Research Association.
- Ganzeboom, H. B., Treiman, D. J. and W. C. Ultee., 1991, Comparative Intergenerational Stratification Research: Three Generations and Beyon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277-302.
- Hirsch, B. T., Macpherson, D. A. and M. A. Hardy., 2000, Occupational Age Structure and Access for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3), 401-418.
- Hodson, R., and T. A. Sullivan., 1996,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 Belmont, Wadsworth, CA.
- Hong Joon, Yoo., Tae In Chung. and Worlwha Kim., 2014, *A Comparative Study of Industry, Occupational Structure and Occupational Prestige Rankings in Korea, China and Japan*(한, 중, 일 3개국의 산업, 직업구조 및 직업위세 순위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18(1), 83-103.
- Kalleberg, A. L., 1988, Comparative Perspectives on Work Structures and In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03-225.
- King, M., 1992, Occupational Segregation by Race and Sex, 1940-88. *Monthly Labor Review*, 115, 30-37.
- Markusen, A., 2004, Targeting Occupations in Regional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3), 253-268.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ian.
- Moretti, E., 2012, *The New Geography of Jobs*, 송철복 옮김 (2014), 직업의 지리학, 김영사.
- Murphy, K. M. and W. Finis., 1994, *Industrial Change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Skill,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by S. Danziger and P. Gottschal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01-132.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Paradin, London.
- Reeve, V., 1977,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American Classes: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4), 783-807.
- Sewell, William H. and Robert M. Hause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Academic Press, New York.
- Tenenhaus, M. and F. W. Young., 1985, An Analysis and Synthesis of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ptimal Scaling, Dual Scaling, Homogeneity Analysis, and Other Methods for Quantifying Categorical Multivariate Data, *Psychometrika*, 50(1), 91-119.
- Thompson, W. and P. Thompson, 1985, From industries to occupations: Rethink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9(3), 12-18.
- Zawacki, R. A., 1999, Gold-collar Standard, *Information Week*, 27 September, 320-323.
- 교신: 이금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kslee@sungshin.ac.kr)
- Correspondence: Keumsook Lee,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kslee@sungshin.ac.kr)
- 최초투고일 2016. 4. 5  
수정일 2016. 5. 3  
최종접수일 2016. 5. 29